



15

컬렉트 2026 리뷰

주최 크라프트 카운슬
웹사이트 craftscouncil.org.uk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런던 서머셋 하우스에서 영국 크라프트 카운슬이 주최하는 컬렉트 2026이 개최됐다. 2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이 아트 페어의 목적은 현대 공예와 디자인의 가치를 조명하는 것. 어떤 정보든 수 초 안에 손에 넣을 수 있고, 클릭 한 번으로 몇 시간 후에 배송이 가능한 시대에 공예가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오래된 기법과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접목해 창의적인 오브제를 빚는 것이 바로 컬렉트가 옹호해온 현대 공예의 본질이자 가치다. 특히 올해는

에디터 출신인 TF 찬Chan을 페어 디렉터로 영입한 점이 눈에 띈다. 예년에 비해 공예 디자인 트렌드를 예리하게 고려한 큐레이션, 민첩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다국적 갤러리의 참여도를 높인 점, 컬렉터블 디자인 콘텐츠를 강화한 점도 돋보였다. 올해 컬렉트에는 영국을 포함해 프랑스, 포르투갈,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의 40개 갤러리가 참가했고 300명 이상의 아티스트 작품을 선보였다. 이 중 대부분이 최근 5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이다. 런던의 대표적인 공예 디자인 갤러리인 갤러리 푸미Gallery Fumi는 가나 출신 작가 코비나 아두사Kobina Adusah가 아프리카 전통 공예에서 영감을 받은 세라믹 오브제를 전시했다. 컬렉터블 디자인을 선도하는 암스테르담 소재의 미아 카를로바 갤러리Mia Karlova Galeri는 재활용 종이와 판지로 제작한 의자와 조명을 출품해 안정성과 예술성으로 주목받았다. 이 작품을 선보인 바딤 키바르딘 Vadim Kibardin은 컬렉트가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실험적인 아트 퍼니처를 선보이는 런던의 맥스 래드퍼드 갤러리 Max Radford Gallery는 폐기 소재로 만든 가구 전시를 꾸려 컬렉트 페어에서 새로운 장면을 선보였다. 한국 작가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씨앗 갤러리Siat Gallery는 정호연, 김정후, 김수연 작가가 만든 컬렉터블 오브제로 호응을 받았고 로이드 최 갤러리Lloyd Choi Gallery가 소개한 이정숙 작가의 세라믹 시리즈 '프래자일Fragile'은 이번 페어의 메인 이미지로 선정되어 한국 공예에 대한 유럽의 관심을 실감했다.

- 1 서머셋 하우스 별관의 컬렉터스 라운지.
- 2 바딤 키바르딘의 '블랙 노스텔지어'.
사진 미아 카를로바 갤러리
- 3 이정숙의 '프래자일 1813'.
사진 Tian Khee Siong
- 4 루이스 케멘노의 '모데스트 패치워크 체어'.
사진 Richard Round Turner
- 5 레 키퍼의 '소토보스케'.
사진 Cavaliero Finn



TF 찬
컬렉트 디렉터

디렉터로 부임 후 준비한 첫 번째 페어였다. 소감이 궁금하다. 9개월 전에 이 자리에 임명됐다. 1년은 준비해야 할 페어를 숨 가쁘게 준비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다. 국제적인 다양성은 이번 페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다. 참여 작가들의 국적이 55개 이상이었다. 30개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확장이다. 갤러리들이 선보인 작가나 작품도 신선했다. 갤러리 푸미가 현대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 저평가되어 아프리카 가나 출신의 작가 코비나 아두사를 끌어들이는 것이 좋은 예다. 지난해 로에베 재단 공예상 최종 후보에 오른 그의 나이는 이제 겨우 26살이다. 아주 흥미로운 신진 작가이고 초기 단계부터 그와 여정을 함께해서 기뻐다. 또한 지난해 런던에서 문을 열고 처음으로 페어에 참가한 지그Jig 스튜디오는 현대 브라질 디자인을 다룬다.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디자인 콘텐츠였다.

장르 역시 세라믹 중심에서 텍스타일, 가구 등으로 확장된 모습이다. 소재의 다양성도 큐레이션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세라믹을 비롯해 텍스타일, 유리, 금속 공예 등 주류 공예 장르는 이미 충분히 조명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비관습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작가들에게 초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크라프트 카운슬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브룩필드 프로퍼티 크라프트 어워즈수상자인 다시 플레밍Darcey Fleming을 들 수 있다. 텍스타일 작가인 그는 폐기된 베일링 트와인baling twine, 즉 농부들이 건초 더미를 묶는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실을 재료로 대형 태피스트리나 가구를 제작한다.

공예 소재 중에서 특히 래커(옷칠)를 강조한 것도 눈에 띄었다. 래커를 다루는 갤러리가 총 네 곳이었다. 홍콩의 갤러리 바이 소일Gallery by SOIL은 이번이 네 번째 참가로, 상업적으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뒀다. 도쿄 기반의 모노 아트Mono Art는 컬렉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일본 작가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참가했다고 한다. 런던 기반의 히로키/화이트 콘duit 프로젝트HIROKI/White Conduit Projects는 교토 출신 작가의 작품을 내놓았다. 일부는 전략적인 접근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일본 가나자와 기반의 갤러리 와조이Wajoy의 이야기에 깊이 공명해 직접 오너를 만나 전시 참가를 설득했다. 이 페어가 그들의 첫 국제 데뷔이기도 했다. 타이밍도 잘 맞았다. 마침 빅토리아 & 앨버트 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차원: 동시대 중국 공예 스튜디오(Dimensions: Contemporary Chinese Studio Crafts)>전에서도 래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4월 말부터 같은 미술관에서 <지금, 우루시: 동시대 일본 옷칠공예(Urushi Now: Contemporary Japanese Lacquer)>전이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를 담당할 빅토리아 & 앨버트 뮤지엄 일본 예술 큐레이터 야마다 마사미는 래커 토크 세션의 모더레이터로 참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래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 컬렉트 역시 래커를 집중 조명하며 갤러리, 작가, 기관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어 기뻐다.

또 어떤 성과가 있었나? 현대 공예와 그것을 다루는 페어의 방향성을 모색한 점. 사람들은 주로 인테리어에 활용할 만한 아름다운 오브제를 찾기

위해 컬렉트를 방문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 현대 공예 작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작가의 커리어에 대한 투자이자 창의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갤러리와 예술 조직의 생태계를 지지하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주변 사물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덜 소유하되 더 좋은 것을, 더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는 1년을 꼬박 다음 페어 준비에 쓸 수 있겠다. 정말 다행이다. 짧은 시간에 첫 페어를 준비하느라 미처 손대지 못했던 부분까지 차분히 들여다볼 시간이 생겼으니. 올해 페어에서의 가시적인 변화, 참가 갤러리 라인업, 시각 정체성의 변화, 마케팅 및 프레스 캠페인 등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관람객에 대해 말하자면, 방문자 수나 이들의 지적 관심에는 만족한다. 하지만 더 세련된 구매자층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다. 현재 국제 아트 시장이 변화하는 추세라 갤러리들이 페어 참가 여부를 더 신중하게 고려하곤 한다. 잘못된 투자는 갤러리에 장기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으니 최고의 고객층을 유치한다는 걸 증명해야 갤러리들이 안심하고 참가할 것이다. 실제로 올해 참가 갤러리 중 몇 곳이 컬렉트 참가 이래 가장 좋은 해였다고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글 신정원 객원 기자 담당 김지아 기자

